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올해 전남대 복학 신청 8명 뿐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1년

6일 의정 갈등을 촉발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만 1년이 됐다.

정부와 의료계는 애초부터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다가 하연 휴학한 의대생도 1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의료 현장은 의료진 '번 아웃'에 의료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올해 전남대 의대생 중 복학 신청을 한 학생이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학과 수업 거부로 나선 광주 지역 의대생들이 여전히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남대, 조선대 의대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학사일정 차질을 빚게 됐으며, 향후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 공백을 해소하는 것 또한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성동구 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원 736명 중 휴학생 699명, 재학생은 37명...조선대 97.3% 휴학 중 의·정 강 대 강 대치 계속...전국 39개대 95%인 1만8343명 복학 안해 의료진 피로감 호소 속 전임의 계약갱신 하루 남기고 재계약도 극소수

'의과대학 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기준 전남대 휴학생 중 2025학년도 1학기 복학을 신청한 학생은 8명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학년생(24학번)은 3명뿐이었다.

전남대 의대(의예과·의학과) 재학생은 736명이며, 이 중 94.9%인 699명이 휴학생이다. 재학생은 37명에 그쳤다.

전남대는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오는 26일 예정했던 의대 전기 학위수여식을 취소하기도 했다.

조선대 의대의 경우 재학생 750명 중 97.3%인 730명이 휴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휴학생 중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사유를 밝힌 휴학생은 676명이

며, 재학생은 20명밖에 없었다.

전남대는 오는 21일까지, 조선대는 오는 14일까지 의대생 복학 신청을 받은 뒤 구체적인 복학 신청자 수를 집계할 방침이다.

전국 39개 의대 현황을 보면, 전국 휴학생은 1만 8343명으로 재학생(1만 9373명)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휴학생 인원 1만 1584명보다 58.6% 증가한 수치다. 휴학생 중 '군 휴학' 또한 1419명으로 지난해 9월(1059명)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선대 재학생은 1030명에 그쳤으며, 그나마도 온·오프라인 등 강의에 출석한 학생은 723명 뿐으로

307명은 '수업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의대 졸업생들이 없어 인력 보충을 해야 할 신규 의료진이 없어 의료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은 의료진은 피로감 호소=1년 가까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5일 전남대병원에서 따르면 전임의 계약갱신일(6일)이 하루 남은 상황에서 상당수 전임의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 수료 후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뒤 병원에 남아 1~2년간 세부 전공을 수련하는 전임의의 경우 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재계약한 전임의의 정확한 인원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약만료를 하루 남긴 5일 재계약을 마친 전임의는 극소수라는 것이 교수들의 설명이다.

의료현장에 남은 전임의는 외래 진료는 물론 환자 입원·전원 등을 결정하고, 입원 환자관리도 도맡아

해왔다. 교수들의 진료와 검사 보조는 물론 수술을 돕기도 한다. 교수 대신 수술을 집도까지 했지만 의정 갈등이 계속돼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 갱신일이 도래한 전임의 상당수가 결국 재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양 병원들은 인력을 보충해야 하지만 배출되는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거의 없어 인력 풀마져 바닥이 났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뿐 아니라 조선대병원에도 새롭게 지원되는 전임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진료전담 교수 등 일련의 채용공고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다는 것이 양 병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투입해 현 상황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간호사들 또한 극심한 피로 누적을 호소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고속도로 차량서 내렸다 여친 사망 제지하지 못한 남친 항소심도 무죄

고속도로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내린 여자 친구가 차에 치어 숨진 사고와 관련 남친 친구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8일 새벽 0시께 광주시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비아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막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7일 밤 10시부터 광주시 서구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B(39)씨를 만났다. 술을 마시지 않은 A씨는 18일 새벽 0시께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B씨의 전 남자친구가 보낸 문자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됐다.

승강이 끝난 A씨는 B씨 전 남자친구가 사는 파주에 가서 사과하겠다고 새벽 0시 50분께 서울대 전 방향 호남고속도로에 진입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B씨는 경찰에 납치당했다며

신고를 하고 차량 시동 버튼을 끄는 행동을 반복했다. A씨는 건디다뚫해 2분만에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86km(비아비스정류장 인근) 부근의 갓길에 차를 세웠다.

A씨는 차에서 내린 B씨가 가드레일을 건너 도로쪽으로 이동하려하자 제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의 제지에도 B씨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B씨(사망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22%)가 순간적으로 화가나 A씨와 같이 있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B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다른 이동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12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아 B씨가 사망에 이를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 5분전 택시 기사가 112에 신고를 했어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112에 신고를 여부가 사고를 방지 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눈길 음주운전하다 시내버스 "황"...5명 부상

광주북부경찰, 30대 입건 조사

광주시 북부 동림동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시내버스가 충돌해 5명이 다쳤다.

광주북부경찰은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

다 광주시 북부 동림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5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벼 재배면적 감축 안 된다" 5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회원들이 정부의 벼 재배 면적 감축 계획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농민들 "수입 안정 보험 일방적 확대 중단" 촉구

광주·전남 6개 농민단체 성명

광주·전남 농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수입안정 보험 확대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광주·전남 6개 농민단체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운석열의 계약업선과 같은 일방적 보험상품 홍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민들은 "정부는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포함

된 농업 4법에 대해서는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입 안정 보험의 확대 시행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농업 4법 반대를 위한 명목 쟁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한국 농업의 미래가 걸린 사안에 대해 농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수입안정보험을 통해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에 따른 농민 수입 감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간이 운

영하는 보험에 농산물 가격 정책과 수급 정책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보험을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그동안 농업정책보험을 운용해온 민간 업체가 영업이익을 위해 매년 보험 규정을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바꾼 만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일방적인 보험확대가 아닌 이미 시행 중인 재해보험, 가격보장보험 등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농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전남도청에서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지역 농민들이 반발하면서 기자회견과 지지투쟁을 예고하자 설명회는 취소됐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